

화상 vs 욕창... 의붓아들 사인 '신경전'

제주지법 어제 아동학대치사 혐의 계모 2차 공판 변호인 "흡인성 폐렴 의심... 화상은 욕창일 가능성" 검찰 "부검 통해 폐렴 배척... 화상 상처 두피 분석"

속보=제주에서 5살 난 의붓 아들을 학대해 사망케 한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계모의 두번째 재판에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13일 아동학대법 위반(아동학대)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별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6·여)씨에 대한 두번째 재판을 진행했다.

A씨는 의붓 아들인 김모(5)군을 지난해 11월 29일 날카로운 모서리를 가진 물체로 머리 부근에 충격적

하게 4cm 가량의 상처를 입히고, 다음날 병원 진료에서 의사로부터 정밀진단 안내를 받았음에도 별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의혹을 받고 있다. 이어 같은해 12월 4일부터 6일 사이에는 김군의 얼굴 등에 타박상을 가하고 뜨거운 물체를 이용해 화상을 입혀 결국 같은달 26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밖에도 지난해 2월부터 11월 사이에는 김군의 살을 빼게 한다며 강제로 다리찜기를 시켜 사타구니에 멍이 들게 하고, 면지제거기로 때려 팔에 상처를 입히는 등 지속적으로

학대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재판에서 변호인 측은 김군의 사망 원인이 학대가 아닌 다른 요인 때문일 수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당시 기록에 의하면 김군의 CRP(반응성단백·조직손상에 반응하는 물질) 수치가 높았고, 폐쪽에 결절이 있는 것으로 보아 '흡인성 폐렴'이 의심된다는 것이다. 또 김군의 후두부 화상에 대해서는 10일 넘게 입원을 하면서 생긴 욕창일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건 발생 당시 경찰이 영장없이 수색한 뒤 사후에 동의를 얻은 점과 보호자의 동의없이 경찰관 3명이 김군의 형제 중 1명을 욕박지르며 취조를 했으며 수사의 위법성도 지적했다.

반면 검사 측은 "이미 폐 부검 등을 통해 흡인성 폐렴에 대한 가능성

이 배척됐다"며 "화상 상처 역시 화상전문에 의해 두피 분석을 마친 상태"라고 맞섰다.

이어 "김군의 형제는 사건 이후 임시보호조치가 이뤄졌고, 친부 역시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민지 못한다면 기록열람을 통해 확인하면 될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 밖에도 증인 신청에 대해 검찰은 김군 및 김군의 형제가 다녔던 어린이집 관계자와 초등학교 관계자, 119구급대원, 부검의 등을 예고했고, 변호인 측에서는 김군의 친부 등을 증인으로 신청할 계획을 밝혔다.

재판부는 "화상이나, 욕창이냐에 대해서는 양쪽 주장이 다른 만큼 서울 소재 대학병원에서 재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예산문제로 예정된 공사 원료시점을 훌쩍 넘긴 삼양-신촌 구간 도로 공사 현장. 김현석기자

부지하세월 공사에 주민들 '부글부글' 삼양~신촌 도로공사 예산부족에 차일피일 "공사현장도 방치돼... 발일 갈때마다 불편"

제주시 삼양-신촌을 잇는 도로 공사가 예산 부족 문제로 2년 넘게 지연되면서 주민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13일 삼양1동에 위치한 도시계획 도로 공사 현장에는 '늦어도 2018년 6월에는 공사를 완료하겠다'는 문구가 적혀진 표지판이 세워져 있었다. 하지만 공사현장에는 하수도 시설, 자갈 등이 방치돼 있었고, 공사를 실시하는 인부도 찾아볼 수 없었다.

제주시 담당 부서를 통해 확인한 결과 이 구간은 지난 1998년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된 삼양-신촌을 잇는 중로2-5-10호선(구간 1440m·왕복 2차로) 공사다. 지역주민 불편 해소 및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 지난 2016년 6월 총 사업비 64억원(공사 36억원·보상 28억원)을 투입해 착공을 시작, 2018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진행했다.

그러나 예산 부족 문제로 공사가 지연되면서 예정 준공보다 2년 넘게 늦어진 오는 2020년 말쯤 완공될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만난 주민 박모(65)씨는 "3년 전쯤 시작된 공사가 아직까지 완공이 안되고 있다"며 "가뜩이나 협소한 도로를 공사한답시고 방치만

해서 발일을 하러 갈때마다 여간 불편한 게 아니다"고 성토했다.

또 다른 주민 이모(60)씨는 "이 구간 도로를 들어가려다 멀리서 오는 차가 보이면 차를 세워두고 기다렸다가 진입해야 한다"며 "기존에 있던 도로도 바닥이 다 깨져 운전하다 타이어가 찢어진 적도 있었다"고 불편함을 토로했다.

해당 지역구인 안창남 제주도의원은 "해당 도로 공사 사업은 예산 부족의 문제로 있지만 사업자 압류 등의 문제도 있어 늦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예산 부족시 추경예산으로 편성해 진행하는 방법이 있지만 더 나은 대안을 (제주시청과 함께)강구해보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제주시 관계자는 "해당 구간 공사는 예산 부족·사업자 문제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공사가 지연됐다"며 "최근 예산 확보를 마쳤으며 늦어도 2020년 말까지는 완공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제주시에 따르면 제주시 지역내에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된 도로는 총 44개 구간이다. 이 중 17개 구간은 공사를 진행, 이외 나머지 구간은 보상협약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석기자 ik012@ihalla.com

렌터카로 유상운송 서귀포시 2건 적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렌터카를 이용해 불법 유상운송을 하던 2명이 적발됐다.

서귀포시는 건전한 관광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 8일 실시한 합동단속에서 렌터카를 이용해 운임을 받고 유상운송한 2건에 대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으로 경찰청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단속은 천지연폭포, 주상절리 등 관광객이 많이 찾는 관광지 중심으로 이뤄졌는데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관광객을 대상으로 렌터카로 불법 유상운송을 하다 적발됐다.

시는 지난해부터 자치경찰단, 관광협회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단속팀을 구성해 관광지 등에서 무등록 여행업, 무자격 가이드 고용행위, 불법 유상운송 등 관광사범에 대한 단속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그 결과 1건의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과 렌터카를 이용해 여행업체로부터 소개받은 여행객을 대상으로 불법 유상운송을 한 3건을 적발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4조, 제81조는 대여자동차 및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미숙기자



5월 중순인데... 벌써 물놀이 초여름 날씨 속에 13일 한경면 판포리 포구를 찾은 관광객들이 이쁜 물놀이를 즐기고 있다. 강희만기자

생계침해·갈취 폭력배 무더기 '쇠고랑'

경찰 최근 두달 악성폭력범죄 특별단속 159명 검거... 19명 구속

제주지방경찰청은 일상생활 주변에서 주민 불안을 야기하는 '악성폭력범죄'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총 159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19명을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3월 4일부터 이달 2일까지 60일간 의료현장과 대중교통, 생계침해·갈취, 대학·체육계 폭력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였다.

검거 유형별로 보면 의료현장 폭력사범은 12명이 검거(구속 1명)됐는데, 피의자 연령대는 대부분 40대

이상이었다. 이어 대중교통 내 폭력사범은 16명이 검거됐으며, 피해자의 97.2%가 택시기사였다.

생계침해·갈취 및 주취폭력사범은 총 131명이 검거(구속 18명)됐으며 피의자의 90%가 음주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81%는 동종 전과가 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사례를 보면 지난달 23일 오전 2시40분쯤 서귀포시 소재 병원에서 A(48)씨가 행패를 부리고, 이를 말리는 간호사 2명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특수협박)로 현행범으로 체포돼 구속됐다. 지난 3월 16일 새벽 0시40분쯤 제주시 연동에서는 술에 취한 채 택시에 탑승한 B(47)씨가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하고 목살을 잡아당기는 등의 혐의로 체포돼 불구속 기소됐다.

또 C(52)씨는 지난 2월 18일부터 4월 15일까지 제주 시내 곳곳에서 택시 무임승차, 영세식당 업무방해, 모델 업무 폭행, 차량손괴 등을 일삼다 경찰에 체포돼 구속됐다. 송은범기자

천연염색원조
면·인견 판매
실크·육사 판매
기타등등 판매

이미에갈옷
천·도·소매 판매
자연염색천 판매
감칠드림천 판매

064. 725. 0229

천연염색 배우실 분 환영함

이미에 갈옷

여름맞이 고객 감사 40~50% 특가세일

오일뱅크, 연복로, 신제주, 메가박스, 신제주, 차세상, 차과, 해장국, 올레마트, 태권도장, 천지담배, 피아모APT, 이도초등학교

725-0229

방수 때우지 않습니다! 속속들이 채워줍니다!!!

에코방수?

에코방수란 특수장비를 이용하여 벽, 창틀, 바닥, 옥상 등의 틈새에 **아크릴수지**와 **마이크로시멘트**를 속속들이 주입하여 안에 있던 물을 밀어내고 **영구적으로 틈새를 채워주어 방수는 물론 단열효과까지** 볼 수 있는 획기적인 방수기법입니다.

에코방수 | TEL. 064-784-8404, H·P. 010-9086-8965